'18번홀 끝내기 버디' 박성현

박성현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의 피너클 컨트리클럽에서 막을 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LPGA 시즌 2승… 세계랭킹 1위 '탈환'

아칸소 챔피언십서 1타차 짜릿한 우승
한국선수들 올해 투어 대회서 8승 합작

박성현(26)이 마지막 18번 홀(파5) 버디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총상금 200만달러)에서 1타 차 짜릿한 우승을 일궈냈다.

박성현은 1일(한국시간)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의 피너클 컨트리클럽(파71·610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언더파 66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18언더파 195타의 성적을 낸 박성현은 박인비(31)와 김효주(24)를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상금 30만달러(약 3억50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3월 HSBC 월드 챔피언십에 이어 시즌 2승 고지에 오른 박성현은 투어 통산 7승 달성과 함께 세계 랭킹 1위에도 복귀했다.

박성현이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것은 올해 4월 초 고진영(24)에게 1위 자리를 내준 이후 3개월 만이다.

한국 선수들은 올해 LPGA 투어 17개 대회에서 8승을 합작했다. 박성현과 고진영이 2승씩 따냈고 지은희(33)와 양희영(30), 김세영(26), 이정은(23)이 1승씩 추가했다.

3라운드 54홀 경기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2라운드까지 선두 경쟁이 치열했다.

박성현과 카를로타 시간다(스페인)가 나란히 13언더파로 공동 선두였고, 박인비와 고진영, 김효주, 대니엘 강(미국) 등 무려 7명이 2타 차 공동 3위에 몰리면서 우승 향방을 점치기 어려웠다.

이날 3라운드는 예상대로 많은 선수가 1, 2타 차이에서 선두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접전 양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공동 선두였던 시간다가 2타 밖에 줄이지 못하면서 우승 경쟁에서 탈락했고, 이날 공동 선두까지 치고 올라온 '다크호스' 다니엘라 다르케아(에콰도르) 역시 14번 홀(파5) 보기로 휘청이면서 한국 선수들끼리의 선두 다툼으로 압축됐다. 그러나 마지막 조에서 경기한 박성현이 18번 홀 버디를 잡아내고 18언더파 고지에 오르며 연장전을 무산시켰다.

18번 홀에서 두 번째 샷으로 공을 그린 위로 보냈고 약 10m 거리에서 시도한 이글 퍼트를 홀 약 50㎝에 붙이면서 사실상 우승을 '예약'했다. 연합뉴스

류성현, 세계주니어체조 마루 금메달

남자단체 6위·여자단체 10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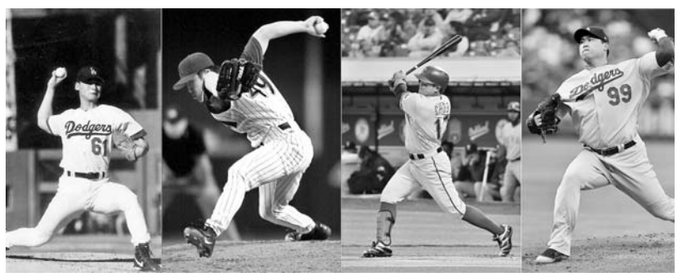
강창용 제주도체조협회장이 이끈 한국선수단이 세계주니어체조선수권에서 개인 금메달을 수확했다.

제주도체조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국제체조연맹(FIG)이 주최해 헝가리 죄르 올림픽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1회 세계주니어체조선수권 마루 결승에서 류성현(울산스포츠과학고 2)이 개인마루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류성현은 마루 결승에서 14.166점을 얻어 2위 펠릭스 돌치(캐나다, 14.000점)와 3위 나자르 체푸르니(우크라이나, 13.866점)를 따돌렸다.

류성현의 금메달에 힘 입어 한국 남자팀은 단체전에서 34개국 중 6위에 올랐으며, 여자팀은 29개국 중 10위를 기록했다. 제주 체조 유망주인 현진주(한라중 2)는 개인종합에서 47.066점으로 전체 64위에 랭크됐다.

강창용 회장이 감독을 맡은 한국선수단은 남녀 각각 3명의 선수가 출전했으며, 박선영 제주도체조협회 이사는 심판으로 참여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역대 한국인 선수로는 4번째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별들의 무대' 초청장을 받았다. 이로써 박찬호(2001년), 김병현(2002년), 추신수(2018년)에 이어 류현진은 4번째 한국인 빅리거 올스타로 맥을 이었다. 연합뉴스

박찬호 패전·김병현 부진… 류현진, 올스타전 새역사 쓸까

한국인 역대 4번째 선정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은 메이저리그에 입성할 때부터 '한국인 최초' 기록을 썼고, 곳곳에 이정표를 세웠다. 생애 처음으로 나서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도 최초의 기록을 쓸 수 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1일(한국시간) 2019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 나설 투수들을 공개했다. 국내 팬들이 바라고, 현지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 류현진은 내셔널리그 올스타 투수에 이름을 올렸다.

류현진은 10일 오전 8시 30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에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출전한다.

KBO에서 성장한 한국 선수가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 뽑힌 것도 류현진이 처음이다. 류현진에 앞서 2001년 박찬호(당시 다저스), 2002년 김병현(당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2018년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꿈의 무대' 올스타전에 나섰다.

박찬호와 김병현은 올스타전에서 부진했다. 한국인의 빅리그 올스타전 악몽을 깬 건 타자 추신수였다. 추신수는 지난해 7월18일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스파크에서 펼쳐진 올스타전에서 2-2로 맞선 8회 초 아메리칸리그 올스타 대타로 나서서 좌전 안타를 쳤다.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나온 한국 선수의 첫 안타다. 추신수는 진 세구라의 좌중월 3점포로 홈을 밟아 득점도 했다. 추신수의 올스타전 성적은 2타수 1안타 1득점이다.

이제 류현진의 차례다. 선배 박찬호와 김병현은 꿈의 무대까지 밟았지만, 본 무대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연합뉴스

프로농구 '연봉 킹' 김종규 12억7900만원

프로농구 2019-2020시즌 연봉 1위는 예상대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으로 원주 DB로 이적한 김종규가 차지했다.

KBL이 1일 2019-2020시즌 선수 등록마감 결과 발표한 보수총액 순위에 따르면 김종규가 12억79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전주 KCC 이정현이 7억2000만원으로 2위에 올랐다.

지난 시즌까지 창원 LG에서 뛴 김종규는 FA 자격으로 DB로 이적하면서 보수 총액이 3억2000만원에서 12억7900만원으로 299.7%가 급등했다. 연합뉴스

제주, 전국레슬링대회서 10개 메달 수확

박영준 -55kg 금… 은 2·동 7

제주도청과 제주국제대가 전국레슬링대회에서 모두 10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제주선수단은 지난 6월 20~26일 강원도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양정모올림픽제패기념 제44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7개를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박영준(제주국제대)이 남대학부 그레꼬로만형 -55kg에 출전해 결승전에서 전익로(경남대)를 2-1 판정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제주국제대는 남대학부 그레꼬로만형에서 안형균(-67kg)이 2위에 올랐으며, 이준희(-77kg급)와 나상인(-87kg급), 박준우(-97kg급)는 각각 3위를 차지했다.

제주국제대 박영준.

제주국제대는 또 남대학부 자유형 -79kg급에 출전한 오상민이 결승전에서 김용학(영남대)에게 T폴패를 당해 2위에 만족해야 했다. 제주국제대는 자유형에서도 김현학(-70kg)과 김희민(-79kg)이 동메달을 추가했다.

남일반부 그레꼬로만형에서는 조영민(제주도청)이 -130kg급 4강전에서 김경민(화천군청)에 판정패해 3위에 머물렀다. 남일반부 자유형 -61kg급의 송현식(제주도청)도 4강전에서 최인상(상무)에게 폴패하면서 3위를 기록했다. 표성준기자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2019 광주 세계수영 선수권대회 D-10 웰컴 투 광주 평화의 물결 속으로	6: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7: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여름아 부탁해(재) 9:40 그녀들의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퍼퓸(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용왕님 보우하사(재) 8:30 TV전국시대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검법남녀 시즌2(재) 11:20 검법남녀 시즌2(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아침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수상한 장모 9:10 좋은아침 10:10 SBS 뉴스 10:30 살맛 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딩동댕 유치원 1 9:30 원더볼즈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2:00 EBS 정오뉴스 12:10 미래교육 플러스 14:30 꼬마버스 타요 15:00 출동! 파자마 삼총사 17:30 페파 피그 19:30 생방송 판다다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21:50 EBS 다큐프라임
12:00 KBS 뉴스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늬우스 13:50 우리말 겨루기(재) 14:40 팔도밥상 스페셜 15:00 가요무대(재)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5 17:30 동물의 왕국	12:10 생생정보 스페셜 12:55 살림하는 남자들(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생활의 발견(재) 15: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15:30 TV 유치원 16: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17:00 다큐멘터리 3일(재)	12:00 12 MBC 뉴스 12:25 테마기행 길 스페셜 13:20 귓고냥 바짝헙서 13:25 꾸러기 식사교실 13:55 2시 뉴스 외전 15:25 에어로버 15: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16:5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1부 스페셜 17:25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2부 스페셜 17:55 웃음주식회사 속암수다	12:00 SBS 12뉴스 12: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12:40 JIBS 뉴스 12:50 불타는 청춘(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접속! 무비월드(재) 17:00 SBS 오뉴스 17:45 JIBS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임미현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9:05 그대창가에 이한철입니다 12:00 CBS낮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15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1:35 라디오강단 22:05 서연미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보물섬 20:30 여름아 부탁해 21:00 KBS 뉴스 9 22:00 시사기획 창 22:55 오늘밤 김제동 23:35 숨터 23:40 거리의 만찬(재)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태양의 계절 20:30 글로벌24 20:55 퍼퓸(재) 22:00 퍼퓸 22:35 퍼퓸 23:10 회사 가기 싫어 2019	18:50 용왕님 보우하사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검법남녀 시즌2 21:30 검법남녀 시즌2 22:05 다큐에세이 그 사람 23:05 PD수첩	18:00 영재발굴단(재) 19:00 세 남자의 뻔뻔한 쿡방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본격연예 한밤 1부 21:30 본격연예 한밤 2부 22:00 여름특집 불타는 청춘 1부 23:00 여름특집 불타는 청춘 2부	**KCTV** 7:00 KCTV 뉴스 8:30 문화카페 9:00 KCTV 뉴스 9:30 김민아의 무비 N시리즈 10:00 제주도의회 임시회 12:30 KCTV 씨네한수 14:00 KCTV 뉴스 15:00 챌린지 퀴즈챔프 17:40 KCTV 시청자세상 19:00 KCTV 뉴스7 21:00 문화카페 21:30 KCTV 종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 748-7400

오늘의 운세 2일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예전과 같지 않다. 경제적으로 힘이 드는 날이다. **48년** 몸은 분주하고 이동, 변동 변화가 찾아온다. **60년** 내주변의 사람과 자주 비교하는 일이 생기니 소신을 가질 것. **72년** 누구에게나 관대하고픈 날이다. 칭찬을 많이 할 것. **84년** 이성운이 있고 취업운·시험운이 있는 날.

37년 직업에서 고민이 생기고 갈 곳이 많아진다. **49년** 유통업·미용·피부·의류업종 이익이 증가하고 매매 등으로 이익이 생기기도 한다. **61년** 쇼핑 또는 이사 등으로 문의하고 금전적 지출도 생김. **73년** 개인사업, 창업 길하다. **85년** 함께 일을 하게 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

38년 인간관계에서 마찰이 올수 있으니 처세술이 필요. **50년** 모임이나 여행이 기다리고 친목도 필요. **62년** 하는 일에 호전되나 인덕이 다소 부족하니 대인관계가 필요. **74년** 몸이 휴식을 취하고 싶어도 집안에서 연락이 와서 나를 찾는다. **86년** 한가지 직업에 충실해야 하나 변화를 주려 한다.

39년 의욕이 강하나 너무 열정적인 것은 오히려 해가 된다. **51년** 외출이나 만남, 모임이 기다리고 있다. **63년**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욕망이 강하다. 매매·문서운 원만. **75년** 지원 또는 도와줄 일이 생기고 외출하는 일이 생긴다. **87년** 일이 지연되고 만남의 성과가 미약하다.

40년 정신적 스트레스가 올 수 있으니 마음을 넓게 갖는 여유 필요. **52년** 함께 모여 기쁨이나 정보를 얻게 된다. 술은 자제하고 유머가 필요한 날. **64년** 신발·패션·그릇분야·이벤트업은 생기가 돈다. **76년** 아랫사람과 유대관계도 지속적으로 유지 필요. **88년** 자신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한 걸음 물러서라.

41년 자녀의 일이나 자신이 하는 일에 변화를 주고 싶어한다. **53년** 새로운 마음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라. 아랫 사람의 공이 따른다. **65년** 스포츠,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거나 식장에 가게 된다. **77년** 취업 또는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은 기쁜 소식이 오기도. **89년** 친구따라 식장에 가서 반가운 소식을 접한다.

42년 분실 망실수가 있으니 지갑, 물건을 잘 챙길 것. **54년** 돈에 이익이 있기도 하고 가야할 곳도 생긴다. **66년** 새로운 투자 전환을 하고 싶어하며 정보를 많이 알려고 한다. **78년** 새로운 이성교제 또는 사회활동에 참여 하려고 한다. **90년** 갈등과 번민이 많다. 가정에선 금전적 문제로 대화단절.

43년 마음이 답답하면 산, 바다로 나가서 휴식을 가져라, 취미생활 권장. **55년** 중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시작하는 일은 보류하는게 낫다. **67년**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오니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좋다. **79년** 동쪽에서 행운이 오고 붉은색이 행운색. **91년** 건강이 최고의 선물. 운동계획 수립, 실천 생활화.

44년 전문직, 자영업에 기쁨. 음식, 예식업. 사우나업은 손님 왕래가 많다. **56년** 주관있게 시간활용을 잘하면 이익이 크다. **68년** 신규 창업시 함께 대책을 강구하여 공존공생하는 것이 유리하다. **70년** 신경이 예민하며 따지려 하는 마음이 강하다. **92년** 기쁜 소식이 오고, 인심 쓸 일이 생긴다.

45년 가정 안에서 불화가 생기니 외부 활동이 원만하다. **57년** 탁월한 언변 친화력으로 인정 받는다. **69년** 업무나 맡은 임무를 대충하면 말썽의 소지가 발생하니 마무리를 잘하라. **81년** 직업으로 갈등하면 자격증을 취득하라. 미혼은 애정결핍을 느낀다. **93년** 궤도를 벗어난 행동을 취하면 구설이 된다.

46년 몸을 분주히 움직이거나 멀리 출타할 일이 생긴다. **58년** 약속에 차질이 생기거나 취소된다. **70년** 나의 지혜로움이 상대에게 기쁨과 스트레스를 해방시켜 줄 수도 있다. **82년** 생각없이 일을 하다보면 손실만 많아지니 철저한 계획이 필요. **94년** 언행으로 인하여 상대에게 상처를 주니 큰 소리는 자중.

47년 어떤 일이든 마음을 먹고 추진한다면 미루지 말고 추진하라. **59년** 직업 변동이나 신규사업을 하려고 움직인다. **71년**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여 저축 또는 미래 설계 필요하다고 느낀다. **83년** 서두르는 것보다 안정속에 한 곳에 집중, 투자하라. **95년** 외출이나 방문시 귀가는 가능한 늦지 않아야 한다.